

세상의 빛

요한복음 1:4-9

어린 아이가 성탄 극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그 말씀을 알려주었지만, 이 아이가 알아 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앞으로 나가서, 아이의 귀에다가 대고 첫 부분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우렁찬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 엄마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20 번을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강절기는 바로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가운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1

성탄의 이야기는, 어두운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눌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높은 세금을 거두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어긋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회 하층계급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첫 성탄절에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세상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향을 떠나 피난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긴장 상태가 팽팽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기후의 변화가 생겨, 잦은 태풍이, 또 산불이, 또 바다수면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비드 19 유행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이번 겨울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백신이 나와서, 반갑기는 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 유행병이 있습니다. 인종 차별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살아가는 미국에, 차별이 너무 심해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복음에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고, 어둠은 그 빛을 삼키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 빛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8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뿐이었다.

9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요한 사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빛은 오늘도 이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방방 곡곡에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이 방방곡곡에 비추듯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집 안에서도 비춥니다. 감옥소에서도 비추고, 병원에서도 비춥니다. 양로원에서도 비춥니다. 재활원에서도 비춥니다. 워싱턴

디씨에서도 비추고, 서울에서도 비춥니다. 한국에서도 비추고, 미국에서도 비춥니다. 온 세상에 비칩니다.

로마서 8 장 38 39 절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빛,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빛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인류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바로 절망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빛입니다.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따뜻한 빛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헤메는 우리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자리로 이 이끄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고, 결국 진리가 불의를 이길 것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림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비추고, 어둠을 이기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 그리고 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 장 14 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미있지요?

한 마디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빛을 발합니까?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추며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세 영성가인 마이에스터 에크하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도록 창조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강절 성경 공부 시간에,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성탄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 말씀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며는, 우리는 바로, 현대판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Modern-day Mary.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라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에서, 행동 가운데에서, 모든 결정 가운데에서 나와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인으로 복음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캐더린 드 휴크 도어티 라는 분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상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육신화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옷을 입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채릴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 사회 불의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수천개의 악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눈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때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수공이 가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기에, 나의 언어가 나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자라는 아기 주님을 태어나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엄마 쥐가 새끼 쥐들에게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오른쪽으로 돌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복도를 지나고 오른쪽으로 돌아 걸어 갔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로 오른쪽으로 돌아 마자, 집에서 키우는 큰 고양이 한마리가 따듯한 햇볕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쥐가 깜짝 놀라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새끼 쥐들에게 소리 내지 말고 뒷꿈치로 걸으면서 자기를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고양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려고 할 참에, 고양이가 눈을 뜨고, 날카로운 앞 발톱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끼 쥐들은 겁에 질려 소리도 못냈습니다. 엄마 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고양이 발톱을 내리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엄마 쥐는 고양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개처럼 짖었습니다. 멍멍. 멍멍 소리에, 고양이가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엄마 쥐가,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새끼 쥐들에게 말하기를, “애들아,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기를 바란다.” 때때로, 제 2 외국어를 하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단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두번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의 언어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소망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빛의 언어를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일하고 있던 곳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쳐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가장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타임 주간지가 이 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1927 년 부터 시작한 전통입니다. 이 번 해에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코마라 해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해의 운동선수로는 리브론 제임스 미국 농구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농구도 잘 하지만, 인종 차별 정책에 적극 반대하였지요. 반가운 소식은 이 해의 연예인으로는, 우리 한국의 BTS 였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7 명의 남자친구들이 노래와 춤으로, 온 세상이 열광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독보적인 음악과 춤 그리고 팬덤 "아미"의 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임 주간지가 이들을 이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들은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기에, 친절, 연결, 포용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고 팬덤은 (팬들의 조직체인데 아미 Army) 이들의 긍정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래 가사를 보며는, 듣는 사람들에게, 특히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또 위로를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빛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두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을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진정,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